

3년만의 V리그 올스타전...23일 광주에 별들이 뜬다

K스타-V스타 팀 맞대결...페퍼저축은행 엘리자벳·이현 등 출전 배구 레전드·도쿄영웅들 한자리에...서브 콘테스트 등 볼거리 다채

광주에서 한국프로배구 '별들의 잔치'가 펼쳐진다. 한국배구연맹(KOVO) 한국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전이 오는 23일 광주 페퍼스타다움에서 열린다. 2018-2019시즌 이후 3년만이자 광주에서 열리는 첫 올스타전이다.

이번 올스타전에서도 세계 무대에서 한국배구를 빛낸 '도쿄올림픽 스타'부터 한국배구를 대표하는 베테랑 '역전용사'들까지 다양한 스타 플레이어가 이 코트를 채울 예정이다.

올스타전은 세트당 15점씩 3세트로 진행되며, 1세트는 여자부, 2세트 혼성, 3세트 남자부 순서로 진행된다. 경기는 K스타 팀과 V스타 팀의 맞대결로 이뤄진다.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의 '주포' 라이트 엘리자벳과 세트 이현은 V스타팀에 포함됐다.

엘리자벳과 이현은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4강진화를 이끈 '클러치 박' 박정아(한국도로공사)와 양효진, 정지윤(이상 현대건설)과 합을 맞춘다.

또 지난 15일 통산 1만 디그 대기록을 세운 리베로 김해란(흥국생명)을 비롯해 이주아(흥국생명)·황민경·이다현(이상 현대건설)·이윤정(한국도로

공사)도 한 팀으로 땀을 흘린다.

남자부에서는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케이타와 박진우·황택의(이상 KB손해보험)·문성민·박경민·최민호(이상 현대캐피탈)·황승빈·라셀(이상 삼성화재)·나경복·장지원(이상 우리카드)이 V스타 팀으로 함께한다.

K스타팀으로 뭉친 선수들 면면도 화려하다. K스타팀에는 도쿄올림픽 라바리니호에서 활약한 김희진·김수지(이상 IBK기업은행)·이소영·염혜선(이상 KGC인삼공사)·안혜진(GS칼텍스)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한다.

광주제과 출신 김주향(IBK기업은행)과 강소휘(GS칼텍스)·한송아·노란(이상 KGC인삼공사)도 한 몸을 이룬다. 여기에 외국인 선수 '카메론 폭격기' 모마(GS칼텍스)도 전력에 가세한다.

남자부는 신영석·서재덕·임성진·황동일(이상 한국전력)·한선수·임동혁·조재영(이상 대한항공)·정성현·레오·조재성(이상 OK금융그룹)이 K스타 팀으로 참전한다.

올스타전에서만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준비됐다.

가장 빠른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해야 하는 '스파이크 서브 킹&퀸 콘테스트'는 올스타전을 대표하

는 이벤트다. 기존 콘테스트는 모든 선수가 참여해 결승 진출자를 뽑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1대 1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승자를 가린다.

여자부에서는 AI페퍼스 이현비를 비롯해 모마, 정윤주, 김희진, 박정아, 이소영, 황민경이 출전한다. 역대 최고 기록은 2013-2014시즌 카리나(IBK기업은행)가 세운 시속 100km다.

남자부에서는 임동혁, 나경복, 조재성, 케이타, 임성진, 홍동선(현대캐피탈), 라셀이 2016-2017시즌 문성민이 세운 시속 123km 기록에 도전한다.

'올스타전 리베로 득점 기록'도 볼거리다. 정규 리그에서 리베로는 수비 전문 선수로서 공격이 금지돼 있으나, 올스타전에서는 공격이 가능하다. 현재 최고 기록은 13차례 올스타전에 출전한 여오현의 12점이며, 14번째 올스타전에 출전하는 김해란도 8점으로 뒤를 쫓고 있다.

세트 사이사이엔 올스타전만의 특별한 시상도 준비돼 있다.

V리그 타이틀스폰서인 도드람양돈농협은 경기 시작 전 소의 계층을 위한 기부금을 광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1세트를 마친 후엔 지난 시즌 우승팀인 남자부 대한항공과 여자부 GS칼텍스의 후원을 받아 초·중등 학생 베스트6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초등 선수와 중등 선수 각 1인이 대표로 수상하며, 장학증서는 한선수, 강소휘가 전달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019년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올스타전에 참가한 V-star 김희진(가운데)이 득점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한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선글라스 쓴 비선 실제 주인공 최순실을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코트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디펜딩 챔프 김시우 "나흘 내내 공격적 플레이 할 것"



2021년 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우승한 김시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오늘 개막 "성적 잘 나오는 코스라 기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하는 김시우(27)가 샷 감각이 좋아지면서 나흘 내내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시우는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20일(한국시간) 인터뷰에서 "최근 대회에서 전체적인 샷 감각은 좋았다"면서 "이번 대회도 샷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퍼트만 잘 된다면 원하는 성적이 나올 듯 싶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많은 버디가 필요한 코스다. 스코어가 잘 나오기 때문에 나흘 동안 항상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야 한다"는 김시우는 "톱10 입장을 염두에 두고 기회가 온다면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1, 2라운드부터 집중하려 한다"고 초반부터 치고 나간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그는 "좋아하는 코스다. 성적이 잘 나오는 코스라 항상 기대된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플레이하면 좋은 찬스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시우는 "작년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회가 왔고 기회를 살려서 우승까지 갔다"면서 "올해도 시작부터 우승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내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타이틀 방어전이라는 부담감을 떨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한 시즌에 한 번씩 우승"을 최소한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김시우는 "우승이 일찍 찾아온다면 2승, 3승까지 바라볼 수 있으니 빨리 우승하는 게 과제"라고 의욕을 보였다.

특히 올해 열리는 프레지던트컵에 출전하고 싶다는 김시우는 "랭킹을 많이 올려서 다시 합류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시우는 2017년 프레지던트컵에 출전했지만 2019년 대회에는 선발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베이징올림픽 참가 선수들 '인권 입조심'

조직위 '중국법 위배 행동·발언 처벌 대상'...미국 선수 "두려움 느껴"



베이징 시내에 세워진 올림픽 마스코트인 슈룽롱(왼쪽)과 빙둔둔(오른쪽) 조형물. /연합뉴스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첨예한 외교 사안인 중국 인권 문제를 공개로 거론했다가는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관계부의 양쉬 부국장은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올림픽 정신과 맞닿은 모든 표현은 보호받을 것"이라며 "올림픽 정신, 특히 중국법과 법규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동과 발언은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입국비자이자 선수촌과 경기장 출입증으로 올림픽 기간 참가 선수의 신분증이나 다른 없는 AD카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처벌 사례를 들었다.

BBC 방송은 중국 관리의 발언이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인권 발언의 위험성을 경고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브리핑 이후에 나왔다고 소개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중국 정부의 신장(新疆)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에 자국 선수단을 파견하지도 개·폐회식 등 행사 때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잇단 외교적 보이콧으로 중국과 서방국의 외교 갈등은 더욱 심화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의 정치 중립을 보호하는 올림픽 헌장 50조 2항을 들어 중국 정부의 방침과 보조를 맞췄다.

올림픽 헌장 50조 2항은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과 선동을 금지한다.

IOC는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기자회견 때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올림픽 헌장 50조 2항 적용을 완화했다. 다만, 시상대에서 정치적 발언은 여전히 할 수 없다.

IOC의 이런 완화 방침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유효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미국 스키 선수 노아 호프만은 "자유롭게 말할 수 없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민키 워드 사무국장은 "중국에서 선수들은 감시당하며,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는 제약될 것"이라며 "선수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을 벌이면서 개인의 안전에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은 근대 올림픽 시대에 전례 없는 일이며 진짜 비극"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

캐디·카트 선택 가능한 '착한 골프장' 늘린다

문체부, 골프장 이용 합리화 세계 혜택·체육기금 용자 우대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와 카트의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캐디나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기금 용자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계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을 이어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이 요건은 이용료와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하위 법령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기존 대중골프장 가운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반면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계 합리화, 체육기금 용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상 경기 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특송
2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특송
3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어나더 라운드, 도쿄 리벤저스
4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특송
5관 레지던트 이블: 라쿤시티
6관 경관의 피
9관 레지던트 이블: 라쿤시티,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7관 세네케를 썬2게더, 하우스 오브 구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8관 세네케를 경관의 피,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1.04.(화)~ 29.(토)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타움 콘서트 I 로미오와 줄리엣

일시 : 2022. 01. 27.(목)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

즐거움 문화산책